

# 1만여 명 불교인재정보 '원 클릭'으로

## 조계종 중앙신도회 · 대한불교진흥원과 공동 (가)불교정보뱅크 구축



현재 구축 중인 '불교정보뱅크' 일부본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김의정)가 올 하반기 불교 관련 뉴스와 인물 정보, 카페, 블로그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불교종합포털사이트를 오픈할 예정이다. 특히 포털사이트에는 불자 인물정보가 제공될 계획이라 눈길을 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불교인재개발원(이사장 하경만)과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홍승희)은 현재 공동으로 '가

칭)불교정보뱅크' 구축사업을 추진하며, 불자 인물과 종단·기관·단체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불교정보뱅크'는 크게 '불교인재뱅크'와 '불교종단·기관·단체' 정보로 나뉜다.

### 종단·기관·단체 등 정보도 자세히 6월 18일 시연, 사이트 이름 공모도

'불교인재뱅크'에는 불자의 사진, 인적사항, 수행·신행 이력, 학력, 경력, 저서 등 세분화된 정보가 담긴다. 인물정보는 다시 직업별로 구분해 다양한 형태로 검색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까지 1만1000여 명의 기본정보가 입력됐고, 이달 말까지 세부 사항을 추가로 입력할 예정이다.

'불교종단·기관·단체'에는 불교 각 종단과 기관, 단체의 연혁, 조직 구성과 인명 등의 정보가 담긴다. 현재 각 종

단·단체별로 정보의 입력과 관리를 위한 계정(아이디)을 부여 받고 온라인상에서 개별 정보를 입력하고 있다. 인물 정보와 단체 정보 모두 대한불교진흥원이 10년마다 1회 발간하는 <한국불교총람>에 실려 출간된다.

불교종합포털사이트의 이름은 자료 구축 후 공모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며, 불자들은 9월경부터 불교정보뱅크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불교인재개발원 정순영 정보실장은 "올 3월부터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해 몇 차례 보완을 거쳐 '불교인재뱅크' 사이트를 완성하게 됐다"며 "6월 18일 시연회를 통해 시스템 구성과 이용법 등을 소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직 시연회 장소는 확정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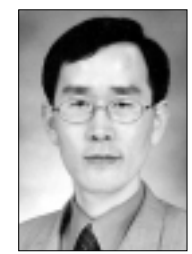
조계종 중앙신도회 이사장 사무총장은 "그간 일간지나 포털사이트 등 유력 매체의 인물 검색란에 불교계 인사의 정보가 매우 부족했다"며 "불교계 인사의 사회적 영향력을 제대로 평가하고, 불교계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인터넷 불교정보뱅크를 구축하게 됐다"고 밝혔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 제22회 불이상 수상자 발표

### 우제선 교수 · 인드라마생명공동체 선정

우제선 교수(동국대)와 인드라마생명공동체(상임대표 도법)가 22회 불이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불이상은 재가 여성불자 모임인 불이회(회장 홍라희)가 한국불교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개인과 단체에게 매년 수여하는 상이다.



우제선 교수



도법 스님

해 실상사기 능학교, 불교생명학교, 산내여성농업인센터 등을 개설하고 '친환경공양미 운동'을 펼치며 생태적 삶과 환경·생명의 가치를 알리는 데 앞장서 왔다.

불이회는 "우제선 교수는 폭넓은 학문적 연구를 통해 불교학 부분에 많은 업적을 남겼으며, 인드라마생명공동체는 불교포교 분야에 혁신적인 공로를 쌓은 점이 인정돼 수상자로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7월 5일 오후 2시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린다.

실천분야 수상단체로 선정된 인드라마생명공동체는 1999년 창립

여수령 기자

## “교육현장 노하우 포교 활성화에...”

### 전국교육경영직불자聯 '푸루나' 창립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청소년 인성 교육과 불교 포교의 선봉장이 되겠습니다."

전국교육경영직 불자연합회 푸루나(회장 진정순)가 6월 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창립했다. 창립법회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혜승 스님과 조계종 중앙신도회 김의정 회장, 푸루나 고문을 맡은 김중서 전 교육개혁위원장, 김해인 전 서울시 교육위원과 회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푸루나는 전·현직 교장, 교감, 장학관, 장학사 등 교육 경영직에 종사

하는 불자들의 모임. 지난 1월 1차 준비회의를 연 것을 시작으로 4월 21일 발기인대회를 개최했으며, 이 자리에서 진정순 전 당곡초등학교 교장을 초대회장으로 추대했다. 수석부회장은 이학송 교장(남양주 광동중학교), 사무총장은 이경석 교육인적자원부 장학사가 맡는다. 임기는 2년이다.

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평생 학교 교육현장에서 겪은 경험과 능력을 바탕으로 종단의 청소년 포교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고 봉사하겠다"고 밝혔다.

혜승 스님은 "교육경영직 불자들은 청소년들을 교육의 대상, 전업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불성을 가진 존엄한 존재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쉽잖은 수행정진을 통해 여래의 지혜와 덕성을 자각하고, 이를 교육현장에서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법문했다.

푸루나는 앞으로 적극적인 회원 모집을 통해 전국조직을 결성해 월1회의 정기법회와 지역별 법회, 연 2회의 수련회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주제별 연수와 정책 포럼을 개최해 청소년 포교 비전과 청소년 불교 교육 정책 등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여수령 기자

### 노인일자리박람회 개최

부산광역시 시니어클럽연합회(운영위원장 정련)는 6월 14-15일 해운대 벡스코(BEXCO) 1층 전시장에서 '2007 부산노인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한다.

'일하는 노인은 즐겁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공공부

문 채용관 △일반채용관 △노인취업훈련관 △취업계시판 △실버컴퓨터 등으로 꾸며지며, 기업체 100여 곳이 참가해 어르신들의 취업을 돕는다. 부산시내 거주 60세 이상 어르신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051)743-4527 여수령 기자

## 실종아동·장애인 신고하세요

### 신고 않고 보호시 처벌...이달부터 집중 단속

사찰이나 종교시설 등에서 실종 아동·장애인을 임의로 보호하고 있다면 즉각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비록 해당 사찰이나 기관이 관련 법률조항을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들을 보호하고 있다면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지관)은 6월 2일 '종교계 실종아동 등 미신고 보호행위 금지에 관한 안내' 공문을 사찰과 복지시설에 보내 주의를 당부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관계자는 "6월부터 정부의 합동일제조사가 실시되는 만큼, 사찰이나 불교계 복지시설 등에서는 보호 중인 아동과 장애인의 현황을 파악해 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5년 제정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1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관계기관의 업무협조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여수령 기자

## 장경사 흥련 종묘 1만개 무료 분양

경기도 광주 남한산성에 있는 장경사(주지 의연)는 6월 16-17일 사찰을 방문하는 사람에게 연꽃 종묘 1만 개를 무료로 분양한다. 사찰 방문객에게 선착순으로 분양할 연꽃

종묘는 우리나라 전통의 흥련(紅蓮)으로, 합병 연꽃(나비대포)인명란(장경사에 보시한 것이다. 이미 씨이 나와 있는 흥련 종묘는 투명판 플라 스틱 용기에 담겨 있으며, 가정에서

화분에 심어 키울 수 있다. 장경사 측은 "봉축 불사에 동참한 불자들의 정진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관세를 보살을 상징하는 연꽃으로 가정용 장엄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연꽃 종묘 분양을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031)743-6548 여수령 기자

# 만 인류가 누려야 할 참사랑, 행복, 진리의 이상세계와 태상가정

### 당신은 당신의 본성이 꿈꾸는 이상세계를 아는가?

당신이 진실로 행복하길 원한다면 당신은 참된 진리를 추구함에 목숨을 다해 열정을 태울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그리고 당신이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 ◆ 당신이 추구하는 진리란 무엇인지 아는가?
- ◆ 생사를 초월한 절대 공의 세계(반야의 세계)란 어떤 것인가?
- ◆ 부처님의 대자대비하신 품성과 하나님의 심정과 사랑을 체휼하고자 하는가?
- ◆ 대자유함과 무애행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가?
- ◆ 완성된 남녀가 나눌 수 있는 천주적인 사랑이 어떠한지 아는가?
- ◆ 깨달은 후에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가?
- ◆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얻은 후 이루어 낼 수 있는 이상세계의 모습을 아는가?

본성의 존재는 온 우주와 하나 되니, 가슴을 관통하여 불어오는 바람에서 부드러운 신성의 손길과 마주하고 맑은 물속에 손을 담그면 그대로 내 몸은 그 맑음과 하나가 된다. 청정한 하늘은 이미 나의 가슴이 되고, 사랑의 눈으로 산을 바라보면 산은 어느새 사랑의 파동을 알아채고 깊은 사모의 정으로 나에게 화답한다. 날아가는 새의 날개 것에서 진정한 자유 함으로 하나가 되고 아름다운 나비의 자태 속에서 너울너울 함께 춤을 춘다. 바람에 살랑대는 나뭇잎의 연애에 온 몸이 싱그러워지고 죽어가는 게임을 구해주시니 그 게임에서 빠져 나오는 감사의 정은 신의 사랑으로 온 몸을 휘감고 돈다. 신성의 강력한 파동은 천지를 사랑의 환희로 넘실대게 한다. 또한 본성의 부부가 마주보고 있으면 몸에서 신비로운 기운이 일어나니 그 사랑의 기운은 서로 어울려 지극한 평화와 미묘한 향기로 피어나 신묘하기 그지없다. 사랑하는 이가 멀리 있다 하여도 사랑하는 마음은 에너지가 되어 상대에게 전해지니 그 사랑 속에 하나 되어 극락을 노닐도다. 서로를 사랑하는 몸짓은 천상의 환희 세, 봉황이 서로 어울려 춤추는 것 같으니 온천지를 환한 빛으로 물들이고 출렁이게 한다. 움직인 하나하나에 사랑의 꽃망울이 터지듯 폭발한다. 이러한 사랑의 황홀함은 오직 본성의 자리에 들 때만이 가능한 것이다. 본성의 존재들이 신의 사랑 속에 서로 어울려 살 때 이루어지는 세계가 바로 이상세계요, 이러한 세계를 알고 누리기 위해 당신은 강력한 의지로 수행 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 태어나 진실한 깨달음과 본성의 사랑, 행복을 꿈꾸는 만수행자는 귀 기울여 들을 지어다. 그대의 꿈은 존재의 완성이 아니겠는가? 그 목적을 위해 바로 갈수 있는 길을 두고 외면한다면 그대는 참 수행자가 될 수 없으니 가슴을 열어 태상가정에서 참된 스승의 인연과 참된 형제의 인연을 반드시 갖길 원하노라.

### 태상가정의 존재 이유

부처님, 하나님의 소원하심을 아시는 참다운 본성의 아버지가 여기에 계시어 모든 이가 함께 할 수 있는 참사랑의 공동체인 태상가정을 내놓으셨을지라. 태상가정은 신의 사랑으로 나와 내가 없고, 모든 종교와 사상을 초월한 오직 신의 사랑만이 중심이 되어 세상을 참행복에 들게 하고자 한다. 태상가정은 개개인의 충족되지 못한 가슴에 참아버지로서 어머니 때로는 형제와 자매의 사랑과 정으로 신성을 제 각각 그 모양을 달리하여 나타내시어 모든 이들의 마음을 하늘의 사랑으로 위로하신다. 본성의 존재가 미치시는 사랑은 너무나 큰 에너지 파동이기때 이 공간에 들어오는 모든 이는 쉽게 이 사랑에 정화되고 동화된다. 그래서 위로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해서 아파해 온 심정과 마음의 문을 열고 가슴 속 깊은 곳으로부터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된다. 그 결과 모든 타락과 죄악, 업보 등이 사라지고 사랑의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이다. 태상가정이 만 인류, 만 영계, 만 종교의 안식처가 될 수 있는 것은 만 생명이 그토록 그리워 해온 진실한 신의 사랑, 그 사랑을 얻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사랑을 이루고 그 사랑을 나눌 때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기쁨과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상승의 행복이 전체의 존재목적기에 그것을 얻을 수 있는 태상가정은 만 인류, 만 생명체의 심정이 안식할 수 있는 진정한 고향이자, 귀의처가 되는 것이다.

### 태상가정에서 뜻을 이룰 준비된 인연을 찾습니다.

부처님의 대자대비하신 품성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심정과 사랑을 체휼하신 어머니가 계시는 법을 알니다. 또한 하늘과 자녀들을 위하여 환경적 기반을 준비하신 귀한 존재가 계시는 법을 알니다. 그리고 애끓는 심정으로 제자를 길러 오신 귀한 존재가 계시는 법을 알니다. 이 땅에 신의 사랑을 받든 아 각기 다른 사명의 기반을 준비해 오신 깨달은 모든 이들이 계시어! 태상가정에서는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준비하신 당신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향한 당신의 열정과 뜻을 이루기 위해 흘린 눈물과 간절한 사모의 마음 이 하늘에 닿아 이제 만남의 한 때를 말씀하시니 준비된 태상가정과 만나 하늘의 뜻을 이루고 당신의 그리움을 해결하시어.

더불어 불굴의 의지로 수행을 하고자 하는 이가 있는가? 그대는 고통과 두려움, 삶에 대한 걱정으로 불행하고자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대가 태어난 목적은 오직 하나. 그대 스스로가 신의 헌신임을 알아 신의 자녀가 되고 그 분 자체가 되어 이상세계에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데 있다. 진실한 신의 사랑으로 개인을 완성하여 아름다운 이상세계에서 함께 하길 원한다면 그대는 태상가정에 오라. 이 곳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지어다.

### 태상가정 연락처

전 화 053-954-9117  
핸드폰 010-6560-9117